

# 대상, Ajinomoto 소송 꺾었다!

##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 아스파탐 기술특허 침해 인정 안해

대상이 세계적인 식품 생산기업인 일본의 Ajinomoto가 제기한 아스파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한국시간으로 8월13일 Ajinomoto가 대상을 상대로 낸 아스파탐의 결정화 공정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Ajinomoto는 2001년 2월 대상이 아스파탐 결정화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 지역에 한해 사용금지 처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상과 Ajinomoto 간의 소송은 국내 식품 생산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특허분쟁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송으로, 대규모의 소송에서 국내 식품기업이 승리한 것은 처음이다.

대상은 판결에 따라 대상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특허를 이용한 Ajinomoto의 악의적인 전략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아스파탐 공정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계 합성 감미료로 다이어트용 식품첨가물로 각광을 받아왔다.

아스파탐 시장은 미국의 NewtraSweet와 Ajinomoto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대상은 네덜란드의 홀란드스위트너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9>